***PRESS INFORMATION*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보도 일시** | **2023. 6. 7. 배포 시부터 보도** |
| **사진 설명** | **강원도 동해시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** |
| **문의** | **강철 차장(02-2189-9607, 010-9447-7079 ,** [**ckang@lscns.com**](mailto:ckang@lscns.com)**) / 뉴스룸(**[**http://news.lscns.com**](http://news.lscns.com)**)** |
| **LS전선, (주)한화 건설부문과 국내 최대 해상풍력사업 협력**  ■ **LS전선, ‘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’ 우선협상대상자 선정**  **■ 해상풍력 선두 업체간 협력 관계 구축**  LS전선이 ㈜한화 건설부문과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추진한다.  LS전선이 ㈜한화 건설부문이 추진하는 ‘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’의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. 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400MW급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. 2022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 124MW의 3배가 넘는 규모다.  LS전선은 2025년 하반기,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육지 연결에 필요한 해저케이블 일체를 공급한다. 계약 규모는 1,000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  양사는 준공 목표를 2026년으로 잡고 제품 사양 등에 대한 계약 협상을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.  LS전선과 ㈜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  LS전선 관계자는 “중국 등 해외 업체가 국내 태양광 시장을 점령한 데 이어 해상풍력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다”며 “이번 협력은 해상풍력 사업의 선두주자인 ㈜한화 건설부문과 해저케이블 회사가 협력, 국내 산업 생태계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고 말했다.  국내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규모는 총 20GW에 이른다. 업계에서는 총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.  LS전선은 세계 최고 수준인 525kV급 HVDC 케이블을 개발하고, HVDC 전문 공장을 준공하는 등 해저 사업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. | |